

“나주 방문의 해 성공을” 시민 서포터즈 출범

시, 시민 참여 홍보로 ‘500만 관광도시’ 도약 의지 관광 수용태세 강화·지역 현대 문화 조성 등 앞장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서포터즈를 출범시키며 시민 참여 기반의 관광도시 조성에 나섰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직능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나주방문의 해 범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관광 수용태세를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현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시민 서포터즈는 나주문화재단과 동

신대학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이동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등 사회단체와 숙박업협회, 외식업협회, 상인회, 예술인단체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행사에 참석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관광도시 나주의 첫인상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공유하며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개척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발대식은 국민의례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방문의 해 추진 방향 소개와 서포터즈 역할 안내, 결의문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2026 나주방문의 해 범시민 서포터즈’가 최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방문객 친절 응대와 관광 홍보 확산, 지역 현대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시민이 함께 만드는 관광도시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범시민 서포터즈 대표단은 “환한 웃음과 친절함 응대로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나주의 얼굴인 시민 서포터즈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나주의 첫인상은 우리가 만든다’ 현대 마인드 교육에서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시민 친절과 서비스 마인드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관광도시로서의 기본 역할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범시민 서포터즈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2026 나주방문의 해 추진단’ 운영 체계를 연계한 핵심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관광 수용태세 개선 활동과 방문의 해 홍보 캠페인, 관광정보 공유 등 시민 참여형 홍보 활동을 펼치며 관광도시 나주의 현장 홍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민관 협력 기반 관광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 전환을 통해 ‘500만 관광도시 나주’ 실현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범시민 서포터즈 출범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관광도시 나주의 출발점이다”며 “시민 참여와 현대 문화 확산을 통해 ‘2026 나주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양시는 축제와 공원 등 시민이 모이는 생활 공간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이동형 독서공간 ‘팝업도서관’을 운영한다.

사진제공=광양시

찾아가는 도서관 탈파...“일상에서 즐기는 독서·휴식 어떨까”

광양, 축제·공원 등 시민과 함께 ‘팝업도서관’ 운영 이동형 서가·야외 독서 공간·체형 프로그램 확대

광양시는 축제와 공원 등 시민이 모이는 생활 공간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이동형 독서공간 ‘팝업도서관’을 운영한다. 팝업도서관은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조성되는 이동형 도서관으로, 사서가 큐레이션한 도서를 현장에서 자유롭게 읽고 독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2026년 지역축제와 공원 등 시민이 모이는 생활 공간에서 이동형 서가와 독서 프로그램을 결합한 팝업도서관을 총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야외 독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팝업도서관 운영의 시작은 13일부터 열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로, 매화문화관 뒷마당에서 운영되는 팝업도서관 ‘비밀의 정원’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이 잠시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마련된 야외 독서 공간이다.

행사장에는 비밀의 정원 콘셉트에 맞춘 테마 도서와 빈백, 텐트 등을 비치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을 잠시 멈추고 책 읽기에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를 비롯해 감성 포토존과 필사 코너 등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시립도서관의 독서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통합 홍보부스를 중심으로 팝업도서관을 운영한다.

‘책과 크는 아이’를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부스에서는 출생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독서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북스타트 선정 도서를 현장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열리는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에서는 AR·X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팝업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팝업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휴식과 소통을 경험하고 독서를 일상 속 즐거움으로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야외도서관 운영을 비롯해 신생아를 위한 ‘생애 첫’ 배송 서비스, 온라인 독후활동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장성, 미사용 임대농기계 ‘공개 매각’

동력파종기 등 17종 30대... 24일 경쟁입찰

장성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해 온 임대농기계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30대를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매각 대상은 동력파종기 등 17종이다.군은 오는 24일까지 공고기간을 갖고 24일 당일 현장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고 기간 중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를 방문하면 입찰 농기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5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입찰 당일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군은 품목별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 가운데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 후에는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기계를 인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유류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한편, 농업인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노후, 고장 등의 사유로 매각되는 농기계라는 점은 감안하는 것이 좋다. 낙찰 후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 이 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이행범 기자 ihb6899@

화순, 제8회 난 명품 박람회 개최

21~22일 하니움스포츠펀터

화순군은 제8회 화순 난 명품 박람회를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화순 하니움문 화순스포츠펀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올해 8회를 맞이하는 화순 난 명품 박람회는 한국출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이며, 국내 대표 난 전시 행사로 자리 잡아 난 문화 확산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국에서 출품한 1000여점 이상의 한국출란과 다양한 품종의 난이 전시된다. 난 애호가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한국출란의 품격과 매

력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는 21일 오후 1시 30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2시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출품한 화예품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등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화순난연합회가 주관하는 경매도 열려 희귀한 출란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이 화순을 찾아 아름다운 난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담양, 대나무 디자인 공예대전 개최

총상금 2860만원...내달 16~17일 접수

대나무의 고장 담양군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대나무공예 공모전인 제45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이하 공예대전)을 개최한다.

담양군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예대전은 1982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이어온 전국 규모의 행사다.

대나무를 주제로 현대적인 감각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관광 기념품, 생활 소품, 실내 장식(인테리어) 및 사무용품 등 창의적이고 쓰임새 좋은 공예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모는 일반부인 ‘융·복합 분야’와 대학생부인 ‘실용 디자인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대나무 공예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반부는 대나무와 다른 소재를 결합한 현대적 창작 실물 작품을, 대학생부는 담양이나 대나무 공예를 상징하는 기념품 디자인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



틀간 한국대나무박물관(061-380-2905)에서 받으며, 시상은 총 62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총 286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입상작은 2026년 5월 담양 대나무 축제 기간에 맞춰 한국대나무박물관에서 약 90일간 전시돼 관람객과 만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예대전은 향후 새 단장을 거쳐 다시 문을 열 박물관의 기념 상품 개발을 위한 첫 단추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참여가 기대된다”며 “전국의 재능 있는 공예인과 대학생들의 열정을 통해 담양 대나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고흥, 조생양파 노지 스마트농업 지구 선정

2028년까지 95억 투입...용수 확보·통신망 구축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 공모에 고흥 금산면 조생양파 재배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은 노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고흥군은 2028년까지 3년간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금산면 조생양파 재배단지 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첫째인 2026년에는 39억6000만원을 투입해 시설설계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수 확보와

관수 배관 설치, 통신망 구축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31억7000만원을 투입해 스마트 관수 시스템과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재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재배 환경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마

지막 해인 2028년에는 23억7000만원을 투입해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제어 플랫폼(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운영 교육을 실시해 데이터 기반 재배관리 모델을 현장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 선정은 고흥 조생양파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금산면 조생양파 재배단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농업인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제공=고흥군